

북리뷰

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최규빈*

마사 누스바움 저, 한상연 옮김, 『역량의 창조 :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파주: 돌베개, 2015.

오랜 기간 발전(development)에 중심에는 성장과 사회적 근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많은 국가에서 생산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제의 규모와 속도가 증가되는 것이 발전으로 인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진보적 산업화 흐름에 동참하여 빈곤의 탈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과 자산을 극대화하며 1인당 GDP 증가에 많은 힘을 쏟아 왔다. 이러한 이면에는 성장의 혜택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재분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GDP 중심의 발전경제가 가져온 놀라운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부를 우선시하는 경제 중심주의는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어렵게 하였고 능동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한 웰빙의 증진은 도외시되었다.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1990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주도한 파키스탄 경제학자 마부 올하크(Mahbub ul Haq)의 발언을 통해 인간 중심 접근법을 환기시킨다.¹ “한 국가의 진정한 부는 국민이다. 국민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누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발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은 물질적·금전적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잊히곤 한다.”²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누스바움은 자신의 저서, 『역량의 창조』를 통해 발전에 있어 인간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에 주목하고 사람이 각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한다.

제2장에서 누스바움이 강조하는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은 사람을 목적으로 보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요시하고 기회와 실질적 자유(substantial freedom)를 증진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역량은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자 정치, 사회, 경제, 가족 환경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길러지는 내적역량과 선택 가능한 기능의 조합을 달성하는 실질적 자유, 다시 말해 내적역량에 맞게 자신의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기회인 결합역량으로 구분된다. 누스바움은 개인의 재능, 지능, 능력에 비례하여 대우받아야 한다는 관점이 기본역량으로 환원되는 것을 경계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하는 결합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헌법과 공공정책을 통해 관여하고 시민의 내적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누스바움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정부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① 생명, ② 신체건강, ③ 신체보전, ④ 감각, 상상, 사고, ⑤ 감정, ⑥ 실천이성, ⑦ 관계, ⑧ 인간 이외의 종, ⑨ 놀이, ⑩ 환경통제라는 10가지 핵심역량 목록을 제시한다.

제3장은 지금까지의 주요 접근법들을 소개하고 한계들을 지적한다. GDP 접근

¹ Sanjaya Baru, “Mahbub ul Haq and Human Development: A Tribut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3, no. 35 (1998), pp. 2275~2279.

²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파주: 돌베개, 2022), p. 12. 원문은 “People are the real wealth of a nation. The basic objective of development is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people to enjoy long, healthy and creative lives. This may appear to be a simple truth. But it is often forgotten in the immediate concern with the accumulation of commodities and financial wealth.”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0), p. 9.

법은 소득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함으로써 분배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삶의 구성요소를 지나치게 단일한 수치로 접근하여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공리주의 접근법이 ‘부’보다 ‘만족’을 중시하지만 사회의 총만족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최하위 계층의 비참한 삶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과 단일 척도에 집중한 나머지 자유를 과소평가했음을 지적한다. 자원 중심 접근법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 말해주지 못하지만 역량 접근법은 인권 접근법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 불간섭과 소극적 자유 개념은 가정과 국가에 해로우며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이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적극적 자유 개념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역량 접근법은 어떤 권리이든 인간다운 대우를 받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행동과 조치를 필요로 하는 바 인권의 세대적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권리 개념에 비해 역량 접근은 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근본권리를 논함에 있어 누스바움은 아르마티아 센(Amartya Sen)의 주장, 즉 역량이 곧 자유이고 사회는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다(제4장). 자유를 발전의 주된 목표로만 간주하기보다 역량에서 강조하는 자유의 내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자유의 증진이 정치적 프로젝트가 될 수 없으며 “자유를 핵심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누어 평가”할 것을 강조한다.³ 또한 누스바움은 특정 역량이 다른 역량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두거나 구체적 역량을 선택하는 것을 국가에 맡기는 센의 입장에 대해서도 유보적이다. 누스바움은 특정한 역량은 모든 국가에 중요하고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5장에서는 역량의 이행에 있어 국가와 공동체가 놓인 상황에 따라 선택의 이면에 놓인 문화적·정치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역량 접근이 인권운동과 달리 이론적 개념을 적극 동원하지 않지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문화다양성을 고려하여 그 현실 바탕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누스바움은 미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비준을 완료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³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p. 94.

점, 그리고 영국이 자신들의 인권은 적극 옹호한 반면 인도인의 인권을 철저히 모독하고 짓밟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제6장은 역량 접근의 이행을 위해 개별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차원의 제도적 해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10대 핵심역량을 모든 세계시민이 보장받아야 한다면 이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가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국가가 구체적인 역량의 최저수준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역사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마다 핵심역량의 수준 차이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핵심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비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량 접근법의 정당성은 결국 사람이 어떤 기회를 누리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누스바움은 제7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파, 17세기와 18세기를 관통한 자연법 사상, 19세기와 20세기의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통시적으로 검토하면서 인간역량을 둘러싼 철학적 논의를 살펴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역사적 뿌리를 파헤치는 동기가 단지 역량 접근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함 이기보다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성숙해지기 까지 인간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비단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닌 부유한 국가에도 해당하는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제8장에서는 역량 접근이 씨름하고 있는 현대의 여러 쟁점을 소개한다. 사회적 약자, 젠더 이슈,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 교육, 환경의 질의 문제들에 있어 역량 접근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누스바움은 인간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는 각 국가에게 있지만 기업, NGO, 개인 또한 그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국민의 역량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인 핵심의무이지만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발전의 진정한 목적이 인간개발에 있지만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GDP와 산업화가 강조하는 경제성장에만 치우쳐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은 역량 접근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점에서 역량 접근의 논의는 계속 진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누스바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가난한 국가이든 부유한 국가이든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국가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 현실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적절한 삶의 질과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이나 핵심역량의 목록은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잔존할 수밖에 없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발달의 최소한의 영역들에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존재하지만 합법적인 권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혹은 비민주적 체제나 실패국가(failed state)의 이기적 리더십이 부여하는 불합리한 기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아가 인간역량을 저해하는 정부 결정에 저항조차 어려운 경우 고통 받는 시민들에 대한 역량 접근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역량 접근법은 정부가 건강과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기본복지를 제공하는 자체를 도외시 할 경우 외부의 개입은 언제 그리고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⁴ 인종청소나 대량학살과 같은 사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인간개발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적정선을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인간존엄성과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은 정치적 주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사안에 따라 이는 개별 주권과 외부 개입의 긴장 그리고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차원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논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오늘날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인권레짐 및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규범적 합의를 통해 감시와 점검체계가 작동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가난한 가정환경의 아동,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차별에 취약한 소수자에 대한 정책이 미미하며 젠더, 인종, 지역 등 집단 간의 수평적 불평등(horizontal inequality)은 가중되고 있다. 인간의 핵심역량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해결 방안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누스바움의 지적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외침이다. 문제는 정부로 하여금 최소한의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일에 책임성을 갖게 하고 가난한 국가를 지원하는 노력을 촉진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과 의회, 법원의 기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⁴ 물론 누스바움은 대량학살과 같은 반인도주의 범죄가 저질러지는 상황에서는 군사적·경제적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가가 최소한의 민주적 적법성을 가진 경우 무력을 통한 군사적 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경제적 제재의 경우도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만 제한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규범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역량 접근은 경제성장 중심 담론에 대안을 제시하고 개념적 명료성 뿐 아니라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출발로 삼아 사회적 약자에 민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역량 접근이 사회정의 수립과 공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오늘날 가중되는 불평등의 문제와 빈곤 및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는 더 많은 관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역량 접근의 성패는 최저수준 이상의 핵심역량을 합의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치구조의 여부와 생존과 국익이 우선시 되는 국제질서에서 인간개발 증진을 위한 책임과 협력을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ru, Sanjaya. "Mahbub ul Haq and Human Development: A Tribut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3, no. 35, 1998.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Concept and Measurement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0.
-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파주: 돌베개, 2015.